

조선 수군이 명랑 해협에서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

명랑 대첩

개요 조선 선조 때인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이 명랑 해협에서 일본의 수군을 크게 격파한 전투이다.

몰이 정유재란은 1597년에 일어났다. 1592년에 조선을 침략하여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을 중단하는 협상을 벌이는 도중에 다시금 조선을 공격한 것이다. 당시 이순신은 조선 수군의 지휘관 자리에서 쫓겨나 일반 병사의 신분이 되어 있었다. 부산에 있는 일본군의 본거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순신에 이어 지휘관이 된 원균이 칠천량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조선 수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이순신을 다시 수군 총지휘관으로 임명했다.

●●● 명랑은 진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로, 거센 물살 때문에 '물불뚝'이라고도 부르는 곳이다.



이순신 장군의 장계에는 조선 수군의 전함이 2척으로 쓰여 있지만, 나중에 1척이 더 발견되어 총 3척의 전함이 전투에 나섰다.

시대 일제 강점기

더 찾아보기 | 김구, 김규식, 독립선언, 3·1 운동, 윤봉길, 이봉창, 이승만, 일본, 태평양 전쟁, 파리 강화 회의, 8·15 광복, 한국광복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민주 공화 정부

대한민국 임시 정부

개요 1919년 4월 13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임시 정부이다.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이끄는 민주 공화제를 표방했다. 1945년 11월에 김구 등 주요 인사들이 귀국할 때까지 일제와 맞서 싸우며 우리나라를 대표했다.

몰이 1910년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후 독립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였다. 3·1 운동이 전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까지 들불처럼 일어나자,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 정부는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 헌장 10개조를 제정해 공포했다. 또한 국무총리와 행정부, 국무원을 두어 우리 역사상 최초로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 공화 정부를 탄생시켰다.

임시 정부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의 중심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이에 국제 정세와 독립운동의 상황을 알리고 동포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봉제와 교통국이라는 비밀 행정 조직망을 만들었다. 연봉제는 임시 정부의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금을 모으는 조직망이었고, 교통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거나 교환하는 통신 기관이었다.

임시 정부는 국제 연맹과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상대로 하는 외교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알렸고, 미국의 이승만은 독립 자금을 모으고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인의 독립 노력을 알렸다. 또한 <독립선문>을 발행해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했다. 1920년에는 상하이에 육군 무관 학교와 간호 학교를 세워 군인을 길러 냈다. 중국 군관 학교에 군인을 파견해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했으며, 1932년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와 상하이의 윤봉길 의거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일본이 세력을 중국 대륙으로 확대함에 따라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다. 1940년대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연합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이름이 담긴 직인. 나라 이름이 '대한 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한 뒤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1940년에는 한국 독립당을 만든 뒤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힘이 약해졌음을 알고, 그동안 조선 수군이 지키던 남해안을 거쳐 서해로 나아가 육지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순신은 남아 있던 배 13척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했지만, 전함 133척에 3만여 명의 군사를 앞세운 일본과 싸워 승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휘관이 되자마자 적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이순신은 명랑의 좁은 물길과 조류를 이용하면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조선 수군의 근거지를 명랑 근처로 옮겼다.

1597년 9월 16일, 마침내 일본 수군이 명랑으로 들어오자 이순신은 조선의 전함을 일렬로 배치하여 좁은 물길을 지나가려는 일본 수군을 총공격했다. 일본 수군은 좁고 거친 물살에 갇힌 채 조선 수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 전함 31척이 파괴되고 8,000여 명의 군사가 죽거나 다치는 손실을 입고 물러났다. 이 싸움의 승리로 조선은 서해 바다를 지키고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실화 명랑 해전을 앞두고 이순신은 임금에게 역사에 길이 남을 장계(신하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문사)를 올렸다. 당시 조선 조정은 어차피 수군의 전력에 약하니 바다에서의 전투를 포기하라고 권했다. 이에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다하여 싸운다면 가능할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장계에 적은 대로 일본 수군과 싸워 이겼다.

●●● 당시 조선 수군은 항아 크게 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항아 수의 적도와 파기에 유리한 명랑에서 전투를 치렀다. 실제로 일본의 수군은 거센 물살과 조선 수군의 총공격에 곤란을 겪다 결국 물러나고 있었다.

군의 지원 활동을 했고,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 협정을 맺어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냈다. 1945년에는 국내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 작전을 계획했다. 총지휘부를 두고 미군과 합동 작전을 계획했으나 미처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8·15 광복을 맞았다. 그해 11월, 임시 정부의 사람들은 국민들의 기대와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다.

실화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이끌 조직이 필요해지면서 무려 7개의 임시 정부가 생겨났다. 하지만 이 조직들은 1919년 9월 15일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통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민국'이라는 명칭은 군주가 다스리는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가 나뉘었음을 의논하는 공화제를 채택해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 공화국이 탄생하는 기초를 닦았다.

●●●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요 인사들. 임시 정부의 사람들은 독립운동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국제 연맹과 사형의 나라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벌였다.



임시 정부는 독립을 위해서는 근대화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군사 학교를 세우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한편, 독립군의 훈련을 지원했다.

호가 직접 목판에 새긴 뒤 1861년에 간행했다. 모두 22개의 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첩을 첩으면 한 권의 책이 되지만 펼쳐 놓으면 가로 4.1미터, 세로 6.6미터의 큰 한판도 지도가 된다. 산과 산줄기, 하천, 바다, 섬, 마을뿐 아니라 기호를 이용해 봉수나 성터, 온천 등이 어디에 있는지, 길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까지 나타냈다. <대동여지도>는 오늘날의 지도와 거의 일치할 정도로 정확하며,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 가운데 가장 정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뒤 32권의 <대동지지> 작업에 몰두했다. <대동지지>에는 전국 8도의 산천과 국방, 도로, 역사 지리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지리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까지 풍부하게 적어 놓은 이 책은 우리나라의 지리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실화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 먼저 "김정호가 8도를 세 번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여덟 차례 오른 뒤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동여지도>는 이전에 나온 많은 지리지의 내용을 집대성하여 만들어졌다. 물론 지리지의 잘못된 부분이나 서로 다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답사할 수는 있지만, 김정호가 전국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그런 것은 아니다. 잘못 알려진 또 다른 사실은 "홍선 대원군이 지도판을 압수한 뒤 김정호와 그의 딸을 옥에 가두어 죽게 했다."는 것이다. 이 소문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전해졌는데, 조선의 뛰어난 지리학을 부정하고 홍선 대원군을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지어낸 것이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지도의 내용을 직접 목판에 새긴 뒤 찍어낸 것이다. 산과 산줄기는 물론 하천, 바다, 섬, 봉수, 성터, 온천 등이 어디에 있는지, 길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까지 매우 정밀하게 표현했다.

시대 일제 강점기

더 찾아보기 | 3·1 운동, 일본, 8·15 광복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한 학술 단체

조선어 학회

개요 1921년에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장지영, 김윤재, 최현배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으며, 잡지인 <한글>을 만들고 <조선어 사전> 편찬을 시작했다. 1942년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해체될 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8·15 광복 후에는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몰이 3·1 운동으로 터져 나온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에 놀란 일제는 1920년대부터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다. 이에 장지영, 김윤재, 최현배 등은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기 위한 학회를 만들었다. 여기서 '학회'란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만든 모임을 뜻한다. 장지영을 비롯한 국어학자들은 일제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 고유의 말과 글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국어에 대한 연구와 강연 활동을 주로 했으며, 1927년부터 <한글>이라는 잡지를 펴냈다. 1929년에는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끝을 맺지는 못했다. 1931년에는 학회의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고쳤고, 1933년에는 오늘날에도 한글 표기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다. 조선어 학회는 1942년에 일어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다. 일제는 1937년부터 모든 관공서에서 일본어만 쓰게 했고, 1940년부터는 학교에서 우리말을 아예 못 쓰게 했다. 우리의 말과 글은 물론 역사와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작은 사건을 꼬투리 잡아 조선어 학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몇몇 사람들을 모집해 고문에 조선어 학회가 학술 단체를 가정한 독립운동 단체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구실로 회원 33명을 잡아간 뒤 28명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결국 모진 고문과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 끝에 이윤재, 한정 등은 목숨을 잃었다.

실화 일제가 조작한 조선어 학회 사건 이후 조선어 학회는 큰 타격을 입고 위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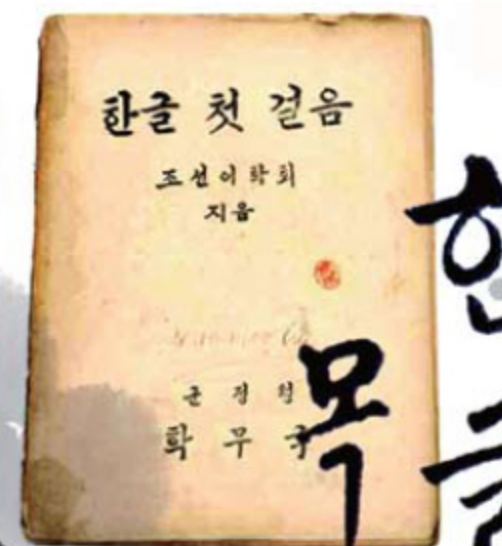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 학회에 참여한 학자들. 이들 중 상당수는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인해 진고문을 받거나 감옥 생활을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 조선어 학회는 국어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연과 집지 출간, 사전 편찬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조선어 학회의 학자들은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는 일에 힘을 쏟았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끝을 맺지는 못했다. 사전은 해방 후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꾼 뒤에 완성되었다.

8·15 광복 후에 조선어 학회가 만들고 이윤재의 학우회가 떠난 첫 교과서인 <한글 첫 걸음>.

었으나 8·15 광복 후에는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1949년에는 학회의 이름을 한글 학회로 바꾸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한글 학회는 1929년에 시작한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을 이어받아, 1957년에 6권의 <근사전>을 펴냈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감옥 생활을 했던 국어 운동가 최현배가 쓴 글씨. 우리 글 사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